

지상중계 / 한라일보·제민일보·JIBS 언론3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제주시를 선거구

# 현안마다 시각차·논문 표절 논란까지... 기선제압 '설전'

한라일보와 제민일보·JIBS 등 도내 언론3사는 1일 오후 JIBS스튜디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를 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출마의 변 >주제 질문 >주제지정 상호토론 >공통질문 >후보 주도권 토론 >반론 주도권 토론 >후보별 마무리 발언 순으로 80분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가 나와 제주4·3특별법, 제2공항 등 현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 >출마의 변

>오영훈=4년 전 제주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당선됐고,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중심에 있었고, 문재인 정부 탄핵에 기여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는 공약형 직불제와 농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 이런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제2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이룩하겠다.

>부상일=2016년 선거에서 도민들이 보내준 성원을 보답하지 못했다는 마음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있다. 머리가 땅에 닿을 때 '공복이라면 도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제주에 필요한 국회의원은 특정 정당·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제주경제를 어떻게 회복할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등 도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오영훈=2017년 12월 제1회 대표발의 했지만,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 개정안의 핵심은 희생자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당시 자행된 불법구금 및 재판 무효화, 4·3을 왜곡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에서 노력하겠다.

>부상일=미래통합당 공천이 확정되는 날 오영훈 후보에게 4·3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고, 무엇 때문에 통과가 안됐는지 물어봤다. 하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제주지역 공약 1호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로 설정했다.

### >제주 제2공항 갈등해결 방안

>부상일=제2공항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현 공항이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코로나로 휘청거리는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한 뉴딜정책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한다. 국책사업에 따른 희생은 피할 수 없다. 공론화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하다.

>오영훈=국책사업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제2공항 갈등으로 도민들이 얼마나 더 아파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 제2공항 갈등해결 방안

오영훈 "적절한 시기 조율" VS 부상일 "조속한 추진"

###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오 "21대 국회서 노력" VS 부 "무능함 때문"

하나.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주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결과가 곧 나온다. 이 시기에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늦지 않다.

>OX 토론 1. 당선되든, 낙선되든 다음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부상일=다음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는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4번째 도전이다. 혼자 결정하는 것은

욕심이다.

>오영훈=출마하겠다. 현재 시민들이 보내주고 있는 지지와 성원에 대해 확신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OX 토론 2.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잘했다. 못했다.

>오영훈=잘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에 의한 위기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회생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저도 국회의원 자격으로 정부에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부상일=찬성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 전체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하위 70%로 대상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즉시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 현재도 정부가 언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5월이 지나서야 나온다는 말도 있다. 즉시 모든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

### >석사학위 표절 논란

>부상일=오영훈 후보가 지난 2003년 6월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정치관여수준에 따른 유권자 행동분석에 관한 연구'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1995년 12월 고려대학교 기업개발 연구원의 학술지에 실린 학술논문 내용을 상당수 표절했다.

>오영훈=해당 학술논문의 내용을 몰라 답변하기 어렵다. 하지만 당시 지도교수와 협의 하에 연구주제 설정과 모형, 설문조사, 글쓰기 모두 내가 다 했다. 만약 2003년 당시 윤리 기준 등에 저촉된다면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 >마무리 발언

>오영훈=내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시작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라 유권자를 일상적으로 만나기 어렵다. 이 점에 대해 이해를 바란다. 지난 4년 동안 공약형 직불제 도입, 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해상물류체계 혁신 등 더 나은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제가 잘사는 제주, 든든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

>부상일=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4년 동안 (오영훈 후보의) 의정활동을 심판하는 측면도 있다. 즉 부상일을 선택하는 것과 상대후보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다.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만 활동한 것은 아닌가, 지역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았나 등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 석사학위 논문 논란에 대해서도 표절이 맞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 쟁점

### 4·3특별법 개정안 또 '네탃' 공방

오 "한국당 동의 안해" 부 "자꾸 네탃만 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다시 '네탃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포문을 연 부상일 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원인은 찾지 않고, 정부를 상대로 질문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만 한다"며 "정부를 설득하는 일인데 왜

국회에서만 활동하나. 대표발의에도 수 십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는 누구도 특별한 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후보는 "4·3특별법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은 한 번도 추념식에 온 적이 없으며, 진상규명이나 유해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관련해서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대표발의에 동참한

60여명 중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안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부 후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다. 또한 이명박 정부 때는 4·3 관련 예산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제가 몸 담고 있는 정당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곧바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오 후보는 자꾸 네탃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 제2공항 건설 놓고 입장차 극명

오 "갈등조정 정치인 역할" 부 "충분한 보상 이뤄져야"

제주 제2공항을 놓고는 두 후보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오영훈 후보였다. 부상일 후보가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면서 '국책사업에 따른 희생은 피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문제를 삼은 것이다.

오 후보는 "국책사업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피할 수 없다는 부 후보

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국책사업이 계속 이뤄질 것인데 그 과정에서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큰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부 후보는 "희생이라는 것은 삶의 터를 내줘야하는 주민들의 희생이 깊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예를 들어 어쩔 수 없이 희생을 당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 후보가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주도의회 차원

의 특별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자'는 발언에 대해서는 부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다.

부 후보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의회의 결과가 상반된다면 어쩔 것인가. 심지어 도의회 특위는 용역을 발주한 것 외에 별다른 활동이 없다"며 "오 후보는 추진 여부를 놓고 핑계를 대며 숨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정치인은 찬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밖에 없다. 다만 도의회 특위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이 나오면, 당장 당정협의회에서 활동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되게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태윤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방지 가시식, 창진가시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정지년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전 브랜드 50~60% 대할인!!  
삼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캠페인**

-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기

그랜드보청기는 고객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문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 ● 국제보청기 (국가지원)  
한라체육관 ● 시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 제주중성서 ● 시청  
제주대 ● 제주중앙여고 ●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